

자원동원성(Resourcefulness)의 개념 분석*

서순림¹ · 박영임² · 김성재³ · 김인자⁴ · 구미옥⁵ · 양영희⁶
이은남⁷ · 박승자⁸ · 최은옥⁹ · 이동숙¹⁰ · 이인숙¹¹ · 이은옥¹²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다양한 문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은 건강 문제를 가진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중요한 능력이다. 그러므로 간호 중재는 대상자들의 대처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Weatherman, 1991; Zauszniewski, 1984). 특히 장기간 건강 행위를 이행하여야 하는 만성 질환의 경우에는 건강 행위를 증진시키고 유지하게 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 요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재전략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기효능, 자기통제, 자기 조절, resourcefulness(자원동원성) 등은 간호학문 영역에서 중요한 개인 내적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다(구미옥과 이은옥, 1992; 서순림, 1996).

이중 자원동원성은 Meichenbaum(1977)이 스트레스 적응 훈련 후에 변화된 대상자의 태도를 설명하기 위해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그 후 Rosenbaum(1980a)에 의해 측정도구가 개발되었고, 이 도구를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Rosenbaum & Ben-Ari, 1985; Rosenbaum & Jaffe, 1983; Rosenbaum & Rolnick,

1983).

자원동원성은 변화하지 않는 기질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 변화되는 능력이므로, 대상자의 행위 변화가 주요한 목적인 간호중재 방법의 개발에 유용한 개념이며 특히 간호중재를 통해 강화시킬 수 있는 개인 내적 요인이라는 점에서 간호학문 영역에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개념이다. 최근 들어 간호학 분야에서 연구(서순림, 1996; Fuller, 1987; Gintner, West, & Zarski, 1989)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개념이 불확실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자기효능, 자기조절 및 자기통제 등의 개념과 공통점이 많고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Leidy, 1990). 또한 자원동원성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서순림, 1996)로서 간호학적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우리말 용어를 정하고 유사 개념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면서 개념의 속성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규명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념 분석 연구는 개념의 속성을 규명하기 위한 체계적인 과정으로서 모호한 개념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유사 개념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파악하면서 개념의 속성을 설명할 수 있는 과정이므로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resourcefulness의 적절한 우리

1) 경북대학교 의대 간호학과 교수
2) 대전대학교 한의대 간호학과 부교수
3) 청주전문대학 간호과 교수
4) 대전대학교 의대 간호학과 시간강사
5) 경상대학교 의대 간호학과 부교수
6) 단국대학교 의대 간호학과 조교수

7) 대동간호전문대학 간호과 조교수
8) 서울보건전문대학 간호과 조교수
9) 인제대학 간호학과 전임강사
10) 적십자 간호전문대학 조교
11)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12)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말 용어를 정하고, Walker와 Avant(1988)의 개념 분석 단계에 따라 개념의 속성, 선행 요인, 결과, 다양한 사례들을 찾아내므로써 자원동원성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간호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유사한 건강행위관련 개념인 자기효능, 자기조절 및 자원동원성의 동시적 개념분석 연구(simultaneous concept analysis)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구미옥 등, 1997).

자원동원성의 개념분석 연구(Zauszniewski, 1995b)가 1편 발표되었으나 이 분석에서는 Rosenbaum(1980b)이 초기 자원동원성 개념 정립시에 제시하였던 문제해결 전략이나 행위 레퍼토리 속성이 축소되고 인지적인 측면의 속성이 강조되어 있다. 개념속성의 범위가 이처럼 축소된 이유는 Rosenbaum(1980a)이 개발한 자원동원성의 측정도구가 주로 인지적 전략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후의 연구들이 이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Braden, 1990 ; Kadner, 1989 ; Rachman, 1990). 그러나 개인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내적 자원 뿐 아니라 사회적 자원들을 사용하여야 한다(Rachman, 1990)는 측면에서 볼 때 인지적 측면에 국한된 연구는 자원동원성 개념의 활용 가능성이나 행위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포괄적인 문헌 고찰을 통해 초기의 개념 정립시에 제시된 정의와 속성을 재확인하여 간호학적 측면에서 자원동원성 개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방법

사전적인 정의를 조사하여 resourcefulness에 해당하는 적절한 우리말 용어를 결정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자원동원성, resourcefulness, learned resourcefulness 등을 주제로 한 1975년 이후의 국내외 연구 논문이나 저서를 고찰하여 Walker와 Avant(1988)의 개념 분석 과정에 따라 분석하였다. 구체적 분석 단계는 다음과 같다.

- 1) 자원동원성 개념의 사용 범위를 고찰한다
- 2) 자원동원성 개념의 속성을 파악한다
- 3) 자원동원성 개념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 4) 자원동원성 개념의 선행 요소와 결과를 파악한다
- 5) 자원동원성 개념의 경험적 준거를 제시한다

II. 본 론

1. 개념에 대한 문헌 고찰

1) 사전적 정의와 우리말 명명

Resourcefulness는 자원의 풍부함, 문제나 어려움을 즉각적,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being 'full of resources' and able to deal promptly and effectively with problems or difficulties)이라고 정의되어 있다(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1992). 또한 영한 사전을 보면 'resourceful'이란 자원이 풍부한, 기량이 풍부한, 자력이 있는 등으로 번역하였고 'resourcefulness'는 그 명사형으로 제시하였다(동아출판사, 1993).

영한사전에서 제시한 용어를 우리말 큰사전(1992)에서 찾아보면 '자원'이란 어떤 목적에 이용되는 인적·물적·근원으로, '기량'은 임기응변의 계략으로, '자력(自力)'은 자기 혼자 힘, 천성의 힘이나 기량으로 풀이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정희(1991)가 Rosenbaum의 learned resourcefulness란 용어를 '학습된 풍부성'이라고 번역하였으며, 서순림(1996)은 이를 '자원동원성'으로 명명하여 사용하였다.

Lazarus와 Folkman에 의하면 '자원'은 사람들이 생활상의 많은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건강과 에너지, 긍정적 신념, 문제해결 및 사회적 기술과 같은 개인적 자원과 사회적·물질적인 환경자원이 있으며, 어떤 사람이 'resourceful하다'는 의미는 그가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거나 요구에 당면하여 자원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는 재치가 있다는 뜻이며, 동시에 자원을 쉽게 쓸 수 있는 것과 필요할 때 가용한 적이 없는 자원을 발견해 내는 유능성을 의미한다(김정희, 1991). 그러므로 김정희(1991)가 명명한 '학습된 풍부성'이라는 용어는 resourcefulness의 중요한 의미인 '자원'의 개념을 내포하지 못함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우리말 용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서순림이 사용한 '자원동원성'이라는 용어는 '자원'이라는 용어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자원을 발견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동원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resourcefulness의 개념에 보다 근접한 우리말이다.

learned resourcefulness란 학습된 무력감(learned helplessness)에 대한 반의어로 도출된 용어이다. 즉 스

트레스 면역훈련결과 개인이 원치않는 결과나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이 획득되었다는 점에 초점을 둔 Meichenbaum(1977)이 소개한 용어로서 Rosenbaum(1990)도 대처행동과 기술의 레파토리로서 획득되었다는 관점에서 'learned'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Rachman(1990)은 이러한 자원동원성은 공식적이던 비공식적이던 이미 학습과정을 통해 획득되는 것이 필연적이므로 굳이 'learned'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간호학문 분야의 Zauzniewski(1995a ; 1995c)도 'learned'을 붙이지 않은 resourcefulness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서순림(1996)은 Rachman의 주장에 부가하여 저절로 학습된 것이 아닌 중재의 결과로 resourcefulness가 개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된'을 제거하여 자원동원성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Rachman, Zauzniewski 및 서순림의 견해에 동의하여 resourcefulness개념의 특징을 가장 적절하게 나타내는 우리말 용어가 '자원동원성'이라는 데에 합의하였다.

한편 '자원동원성'이란 용어는 사회학에서의 resource mobilization과 혼동할 수 있다. resource mobilization이란 내, 외적 자원을 통하여 자원의 사회화 즉 자원을 가동시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Reddy, 1993 ; Zimmerman et. al., 1991). 다시 말해서 사회학에서의 resource mobilization은 개인이 가지고 있거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조직체가 가동하여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개념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자원동원성'과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2) 자원동원성 개념에 관한 논의

스트레스로 인해 무력감을 느끼는 대상자가 비적응적인 사고, 정서, 행위에 대한 자기 감시(monitor)와 문제해결 기술, 자기통제 기술 및 정서 조절방법에 관한 스트레스 면역 훈련 프로그램을 받은 결과 자신의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변화된 태도를 가지게 될 때 이를 Meichenbaum은 학습된 자원동원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개념은 인지행동이론을 근간으로 한 Kanfer(1977)의 자기조절 이론(theory of self regulation)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Rosenbaum, 1988), 자기조절이란 인간이 습관적으로 해 오던 자동적인 행위(automatic behavior)로는 조절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딪힐 때 상황적 변수들(특히 인지)을 변화시키는 반응을 통해 자기통제를 하는 과정을 말한다(김남성, 1991).

이처럼 Meichenbaum(1977)이 자원동원성을 인지를 중점으로 한 태도라고 한데 반해 Rosenbaum(1983 ; 1989 ; 1990)은 개인의 인지, 정서, 행위를 포함하는 대처전략 레파토리라고 함으로서 자원동원성을 개념화 하였다. 즉 자원동원성은 자기통제 과정에서의 인지적 과정을 강조할 뿐아니라 자기통제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행위 레파토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자기조절 이론과는 차이가 있다(Rosenbaum, 1983). 또한 자원동원성은 기질(personality trait)이 아니라 개인이 사회물리적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교류 작용하는 동안 형성되어 획득된다(Rosenbaum, 1983). 한편 자원동원성은 장애를 일으키는 사고, 정서, 감각 등의 내적 반응을 인지적으로 조절할 뿐아니라 자기조절 행위를 잘 할 수 있다는 신념 및 목표 행동을 이끌어 내는 주도성도 갖는다.

요약하면 자원동원성은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한 부적응적 사고, 정서, 감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절행위 및 행동변화를 촉진하고 긍정적 행위의 방해요소를 감소시켜 적응적 기능을 유지하는 행위에 영향을 준다. 즉 자원동원성이 높은 개인은 불안, 우울, 통증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이 해 오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반면 자원동원성이 낮은 사람은 이로 인해 무력감에 빠진다는 점(Rosenbaum & Palmon, 1984)에서 자원동원성은 개인에게 자기조절 행위를 잘 하게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원동원성이 높은 사람은 흡연습관이나 식이습관과 같이 계속해 오던 행위를 버리고 새로운 행위로의 변화를 촉진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Rosenbaum, 1990 ; Katz & Singh, 1986 ; Leon & Rosenthal, 1984) 자원동원성은 행위변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자원동원성이 높은 사람은 불능이나 위협적인 상황에도 긍정적인 내적 조절을 하여 잘 대처하여(Zauzniewski, 1994) 적응적 기능유지행위를 잘 할 수 있다.

자원동원성은 조건형성(conditioning), 모델화(modeling)와 같은 간접경험과 직접경험 그리고 지시를 통해 학습된다(Rosenbaum, 1983). 조건형성을 통하여 학습된 자원동원성이란 행동변화나 촉진을 위한 개인의 내적 반응을 말한다. 즉 스트레스 상황에 뒤따르는 행동변화를 위한 개인의 내적 반응이 스트레스를 잘 처리하게 되면 그 대처반응은 획득되어 습관화되는 것을 말한다. 모델화란 개인은 자원동원성이 높은 사람의 대처기술과 적응을 모델로 한 간접적 경험을 통하여 성공에 대한 기대와 긍정적 자기진술, 자기통제를 할 수 있음은

의미한다. 또한 자신이 직접 스트레스를 직면하여 성공적으로 대처한 경험이 자원동원성을 높힐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다고 교시하는 가운데 자원동원성이 높아질 수 있다.

Rosenbaum(1990)은 자원동원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36문항의 자기통제 스케줄을 개발하였다. 불쾌한 정서와 심리적 반응을 다루는 인지적 전략 사용정도, 문제해결전략 적용정도, 만족감 지연 능력정도, 내적사건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 기대감 정도를 측정하는 이 척도는 총 점수가 높으면 자원동원성이 높은 것이다.

3) 자원동원성에 관한 선행 연구

Rosenbaum(1980)이 자원동원성 도구를 개발한 이래 이 개념은 스트레스-대처, 통증, 우울, 적응적 기능, 행위 등의 영역에서 연구되어 왔다. 자원동원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Rosenbaum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시행되었는데 각 연구에서 사용된 자원동원성의 개념을 보면 다음과 같다.

Rosenbaum(1989)은 자원동원성이란 스트레스에 대한 내적 대처자원으로서, 스트레스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건강관련행위 선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한편 Kadner(1989)는 자원동원성 개념속성의 일부를 언어적 기술로 조작적 정의하면서 이는 교육에 의해 획득되는 문제해결 능력이라고 했다. Hinds(1990)의 케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원동원성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로서 작용하여 목표행위인 삶의 질 증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의 가용력으로 제시하고 있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경험에 대한 학습 반응을 이해하고자 한 Braden(1990, 1991, 1992, 1993)의 연구에서는 자원동원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enabling skill)'이라고 명명하고 역경(adversity)시 이를 관리할 능력에 대한 지식 수준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일련의 연구 결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은 개인의 우울과 불확실성을 낮추어 자조(self-help)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였다. Rachman(1990)은 자원동원성이란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 사회적 자원들을 사용하는 능력으로서 새롭거나 어려운 혹은 위협한 과제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Marheny 등(1993)의 연구에서도 인지적인 자기조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조직망을 활용하고 이용할

가능성, 시간과 에너지를 조직하고 관리할 능력, 경제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는 등을 자원동원성 개념에 포함시켜서 내적, 외적 자원의 가용력으로서 개념화하고 있다. Zauszniewski(1995a)는 자원동원성은 문제해결 능력, 창의력, 적응력, 집중력, 인지상태로 나타남으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내적, 자원의 가용력을 제시했으며 선행요인은 경험에 해당되는 부모훈련, 시행착오와 지식이고 결과는 업무성취, 성공, 자아성취라고 했다. 이후 자원동원성 개념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Zauszniewski, 1994a ; Zauszniewski, 1994b ; 1995a ; 1995b ; 1995c)에서는 개인이 건강추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획득된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영적 자원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Zauszniewski(1995b)는 자원동원성 활용의 결과로 개인의 적응적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요약해 보면 자원동원성은 교육이나 경험, 공식적 혹은 비공식 학습 및 지시에 의해 후천적으로 획득된 것으로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해결이 요구될 때 내적, 외적 자원을 동원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제시되어 있다. 자원동원성 활용결과로 자원동원성은 삶의 질 향상, 무력감의 감소, 우울과 불확실성의 감소, 적응적 기능의 증진 등의 목표행위를 성취할 수 있게 하였다.

Kadner(1989)의 자원동원성 구성개념의 일부인 자기감시는 정서, 인지 및 감각을 포함한 내적 사건의 자기통제 역할을 강조하였다. 즉 자원동원성은 혈액투석 환자의 수분섭취와 같은 만족감을 지연시키는 능력(Rosenbaum & Ben-Ari, 1986)이거나, 뱃멀미를 참을 수 있는 능력(Rosenbaum & Rolnick, 1983) 및 체중조절(Leon & Osenthal, 1984)과 금연(Katz & Singh, 1986)을 더 잘 할 수 있고 그 행동을 계속 유지하는 데에는 관여하는 자기조절 기술이다.

또한 Aikens, Wallander, Bell과 Cole(1992)은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다양성, 자원동원성, 치료법 이행, 대사조절간의 관계를 경로분석한 결과, 자원동원성이 대사조절과 같은 자기통제 기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원동원성은 즉각적인 욕구를 지연시키거나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및 고통스러운 느낌을 견뎌 낼 수 있게 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즉 자원동원성은 수분섭취 제한, 체중조절, 금연 등과 같은 건강행위의 지속을 위해 개인의 내적 심리적 반응을 조절하고 만족감을 지연하는 자기 제어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Meichenbaum(1977)은 스트레스로 인한 자신의 부정적 사고, 정서, 행위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신념과 태도를 자원동원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자원동원성은 Rosenbaum과 Jaffe(1983)의 소음 노출 실험에서는 소음에 대해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기대로, Rosenbaum과 Palmon(1984)의 연구에서는 간질환자가 발작의 실제적인 통제여부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발작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으로 제시되었다.

위의 연구에서는 자원동원성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신감의 속성을 나타낸다. Kadner(1989)도 자원동원성을 융통성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 세트를 조절하는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하였는데 그의 자원동원성 개념의 세가지 구성요소 중 자기평가적 기술(self-evaluative skill)이 이에 해당된다.

관련 시험전 준비기간에는 문제중심의 대처를 하다가 시험당일에는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자기진술을 하게 한 연구(Gintner, West, Zarski, 1989)와 Rosenbaum과 Ben-Ari(1985)의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글자맞추기와 같은 시험과제 연구등에서 자원동원성은 스스로에게 자주 긍정적인 자기진술하는 자기지시 속성으로 사용되었다.

류마티즘 환자들이 나타내는 증상에 대한 반응 연구(McNamara, 1992)에서 자원동원성의 결과 질병과정의 해로운 영향을 완충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항암치료 환자의 연구(서순림, 1996)에서 자원동원성은 환자의 사회적 지지 추구, 문제해결 전략, 자기간호와 같은 적극적 대처 행위를 늘릴 수 있다고 하였다.

2. 개념의 속성

자원동원성은 스트레스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려는 목적을 지닌, 의식적으로나 의도적으로 자원을 활용시킬 수 있는 학습된 능력으로서 개인이 가진 각자 독특한 사고, 인지, 행위의 레퍼토리이다. 문헌고찰을 통하여 자원동원성의 개념적 속성을 도출한 과정은 <표 1>과 같다.

첫번째 자원동원성의 속성은 가용력(availability)이다. 가용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 인지-행위 자원뿐 아니라 외적 사회적 자원까지도 문제해결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성있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Rosenbaum(1988)이 자원동원성의 한 속성으로 제시한 문제 해결 전략의 적용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

니라 Rachman(1990)이 주장한 사회적인 자원들을 사용하는 능력도 포함하는 속성이다. 또한 Zauszniewski(1995a : 1995b : 1995c)가 인지적인 측면으로 국한시킨 속성을 다시 확대한 것으로서 자원동원성의 개념을 가장 잘 특징지워주는 핵심적인 속성이다.

두번째 자원동원성의 속성은 제어력(controllability)이다. 이 속성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즉각적인 욕구를 지연시키거나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뿐 아니라 불쾌한 생각, 느낌, 고통스런 생각이나 감정을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Zauszniewski(1984, 1995a)가 제시한 자기 통제(self-control)나 Rosenbaum(1989)이 제시한 즉각적인 욕구 지연, Kadner(1989)의 자기감시(self-monitoring)의 속성을 내포한다.

세번째, 자원동원성은 자신감(confidence)이라는 속성을 갖는다. 즉 자원동원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에 대처한다는 의미로서 Rosenbaum(1988)이 제시한 내적 사건의 조절 능력에 대한 일반적 신념을 포함한다. 또한 Zauszniewski(1995b : 1995c)가 자원동원성의 속성으로 제시한 자기효능(self-efficacy)을 내포한다.

네번째 속성인 자기 지시(self-instruction)는 심리적 혹은 정서적 반응을 인지적으로 다루는 능력으로서 긍정적으로 스스로를 교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특성을 뜻한다. 즉 자원동원성이 높은 사람은 곤경에 처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암시를 주고 신념을 강화하므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이는 Rosenbaum(1988)의 인지적 자기 교시적 전략과 Kadner(1989)가 제시한 자기평가적 기술을 포함하는 속성이

3. 개념의 다양한 사례

1) 모델 사례

53세 무역 회사 중역인 박씨는 5년전 회사에서 실시한 건강 검진에서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았다. 컴퓨터 통신의 게시판에서 고혈압 자기 조절 프로그램을 보게된 박씨는 이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다(availability). 자기 조절 프로그램에서 받은 교육을 통해 스스로 고혈압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긴 박씨는(confidence) 혈압을 조절하기 위한 계획적인 일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매일 저녁 맨손 마루운동과 단전호흡을 하였고 체육관에 갈 수 없는 날에는 집에서 운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으며, 저염식은 부인의 협조

〈표 1〉 자원동원성 개념의 속성

연구자(연도)	연구대상	자원동원성 개념	연구결과	개념의 속성
Rosenbaum & Rolnick(1983)	해군(뱃멀미하는 사람과 하지않는 사람)	자기통제행위	뱃멀미 참음	제어력
Rosenbaum & Jaffe(1983)	학 생	소음에 대한 대처 능력과 그영향을 감소시키는 능력	통제할 수 없는 소음에 대한 무기력감이 적게 나타남	자신감
Leon & Rosenthal(1984)	비만 환자	체중조절력	체중감소와 조절행위유지	제어력
Rosenbaum & Palman(1984)	간질 환자	발작 조절에 대한 신념	우울 감소와 불능에 대한 대처 능력향상	자신감
Rosenbaum & Ben-Ari(1985)	학 생	긍정적인 자기진술	대처능력향상	자기지시
Rosenbaum & Ben-Ari(1986)	혈액투석환자	수분섭취만족감지연	수분제한유지	제어력
Katz & Singh(1986)	흡연자와 6개월이상 금연자	바람직한 행위의 유지, 지속 능력	금연행위유지지속	제어력
Rosenbaum(1989)	종설연구임	문제해결능력	스트레스상황에 효과적 대처, 건강관련행위선택을 잘함	가용력
Kadner(1989)	2차문헌임	언어적 기술, 자기감시, 자기평가	스트레스회복력 증진	가용력 제어력 자신감
Hinds(1989)	폐암 환자	대처기술	삶의 질 증진	가용력
Ginter, West, & Zarski(1989)	학 생	긍정적인 자기진술	스트레스 증상 감소 문제중심 대처	자기지시
Braden(1990, 1991, 1992, 1993)	'90관절염 환자 '91-'93 전신성 홍반성 낭창환자	가능하게 하는 기술(역경을 관리하는 능력에 대한 지각수준)	우울과 불확실성을 낮춤 자조능력증진	가용력
Rachman(1990)	군 인	개인적 사회적 자원사용능력	새롭거나 위험한 과제 의 성공적 수행	가용력
Zauziewski(1995a)	건강한 노인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지능력, 집중력 인지상태	업무성취, 성공, 자아성취	가용력
Aikens등(1992)	당뇨 환자	대사 조절력	대사조절	제어력
Marheny등(1993)	학 생	인지적 조절, 타인의 조직망활용, 시간과 에너지 관리	대처증진	가용력
Zauziewski(1994a, b, 1995, b, 1995c)	우울환자와 정상인	생리, 심리, 사회, 문화, 영적 활동	건강추구 및 적응적 기능증진	가용력

를 얻어야겠다고 결정하였다(availability).

규칙적인 운동이 힘들고 귀찮아 그만두고 싶은 충동이 생기지만 꼭 참고(controllability) 중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평소 즐기던 짠 음식을 먹지 못해서 식사시간이 고통스러울 때에는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야'라고 되뇌었으며(controllability, self-instruction), 과음할 가능성이 높은 모임이나 연회에 참석해서는 '나는 지나치게 많이 마시지 않겠다'라고 자신에게 다짐을 한다(self-instruction). 박

씨는 혈압 조절은 물론 건강 유지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다(confidence).

모델 사례는 개념의 모든 속성을 포함하는 예이다(Walker & Avant, 1988). 이 자원동원성의 사례는 외적 자원(교육, 부인)과 내적 자원(문제해결 능력, 판단력)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가용성(availability) 속성을 갖고 있다. 또한 자신의 고혈압 조절능력에 대한 자신감(confidence), 부정적인 느낌(힘들고 귀찮고 즐겁지 않음) 참고 충동적이 되지 않는 제어력

(controllability), 긍정적인 자기-지시(self-instruction)를 포함하는 사례이다.

2) 경제사례

18년째 습관적으로 과음해 온 48세 김씨는 진전섭망으로 2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이어서 3개월간의 알코올리증 치료를 받았다. 치료 시작부터 동기 유발이 잘 되어 있던 김씨는 치료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금주에 대한 매우 높은 자신감을 나타냈다(confidence). 그동안 중단했던 건축현장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주위사람들은 김씨의 확고한 금주 결심에 놀라워하였고 김씨 스스로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느꼈다(confidence). 가끔 술생각이 날 때에는 끊기 전의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욕구를 조절하였다(controllability). 식사시간이나 일이 끝난 후에 동료들이 술을 권할 때는 '나는 절대 마시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곤 하였다(self-instruction).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동료들이 반복적으로 술을 권할 때에는 자신 때문에 기분이 상하지 않았을까 염려되었다. 그는 술을 마시지 않고 동료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했으며 함께 있는 시간을 부담스러워 하게 되었다(availability 결여). 차츰 동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생각되어 우울해 하거나 의기소침해지곤 하였다.

경제 사례는 개념의 주요한 속성 중 일부만을 포함한 사례이다(Walker & Avant, 1988). 이 사례는 자원동원성의 통제성, 자신감, 자기-지시의 속성은 포함하고 있으나 가용력의 속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 사례에서 김씨는 음주를 권하는 사회적 압력 상황에 대처하는 가용성(availability)이 없어서 이 상황을 적절히 대처해 나가지 못하며 또한 부정적인 정서를 해결하는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다.

3) 관련사례

회사원인 37세 서씨는 교통사고로 광범위한 골절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치료가 성공할 것이라는 강한 신념을 지닌 주치의와 간호사들의 노력을 보면서 서씨는 불구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 버릴 수 있었다(의료팀의 confidence). 두 차례의 수술과 회복의 과정에서 심한 통증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으나 '며칠만 참으면 통증은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간호사들의 말에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었다(간호사의 instruction). 특히 시씨 부인은 규칙적인 체위 변경, 위생 상태 유지, 균형 잡힌 식사, 수동적 운동 시행 등을 제공하였다. 그로 인

해 서씨의 회복 속도는 매우 빨랐고 합병증도 나타나지 않았다. 회사 업무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 실직을 염려하고 있던 서씨는 직장 상사의 배려로 걱정이 해결되었음은 물론 경제적인 원조까지 받게 되었다.

관련 사례란 연구하는 개념과 비슷하거나 연관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Walker & Avant, 1988). 위의 사례는 사회적 지지 개념의 예이다. 서씨의 문제는 전적으로 외부의 정신적 도움, 물질적 도움, 보호 및 지원 등에 의하여 해결되었다.

4) 반대 사례

55세 자영업자 오씨는 5년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고 몇가지 사항을 지시 받았다. 의사의 권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내던 오씨는 5개월 전 심한 감기로 병원에 갔을 때 혈압강하게 처방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 저염식, 금연, 금주를 지시 받았다. 그러나 오씨는 그것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고혈압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다. 더구나 60세에 고혈압으로 돌아가신 선친을 생각하면서 '나도 아버지처럼 되고 말겠군'하면서 비관적이고 절망적이 되곤 하였다. 친지가 가족이 폭음에 대해 걱정스러운 조언을 하면 '내가 무얼 위해서 술 마시는 즐거움을 참아야 해?' 하고 화를 내면서 무시하였다.

반대 사례란 연구하는 개념의 속성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 예이다. 오씨는 내적, 외적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이 없었으며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도 결여되었다. 즉각적인 욕구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제어력이 없었고 부정적인 자기-지시를 사용하였다.

4. 선행 요소와 결과

선행요소는 개념 발생 전에 일어나는 일이나 사건을 말한다. Rosenbaum(1983)은 자원동원성의 선행요인을 첫째,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과 둘째, 내적 과정에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때라고 하였다. 그러나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은 자원동원성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출처이지만, 두 번째인 내적과정에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때는 자원동원성의 활용을 촉발시키는 상황적인 요소로서 그 차원이 다르다. 다시말해 직접경험, 대리경험 및 교육을 통해 학습된 자원동원성이 내적 과정에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때 작동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문헌고찰을 통해 확인된 자원동원성의 선행 요인은

직접 경험, 대리 경험, 교육으로서 이를 통해 자원동원성은 학습된다. 자원동원성의 선행 요인인 경험은 자신의 행위와 결과가 일치되는 자신의 성공 경험(contingent experience)을 의미한다. 자신의 행위와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험을 통해 학습되는 것은 무력감이다(Abramson, Seligman, & Teasdale, 1978). 대리 경험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 경험을 통해 자원동원성이 학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은 개인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격려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을 말하며 이를 통하여 자원동원성이 학습된다.

결과는 그 개념의 결과로 발생한 일이나 사건을 의미한다. 문헌에서 확인된 자원동원성의 활용 결과는 목표행위의 성취이다. 자원동원성이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재발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고 보고한 연구(Weatherman, 1991)와 자원동원성이 알코올 중독자 집단을 정상 집단과 유의하게 구분한 변수로 규명된 연구(Granade, 1990)를 보면 자원동원성의 결과가 목표행위 성취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체중조절과 자원동원성에 관한 연구(Smith, 1979)에서도 자원동원성이 목표행위 성취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표행위 성취를 통하여 적응 수준이나 삶의 질이 증가하고 대처 능력이 향상된다. 이러한 자원동원성의 궁극적인 결과는 인내심 향상(Rosenbaum, 1980b)과 적극적인 대처행위와 문제해결 능력향상(Fuller, 1987; Gintner, 1989; Rosenbaum & Jaffe, 1983; Rosenbaum & Rolnick, 1983)에 대한 연구보고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심리적 측면의 적응 수준 향상은 우울이나 불안과의 음의 관계 보고한 연구들(Bressler & Peiper, 1992; Brock, 1991; Ellett, 1991; Gulesserian, 198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원동원성의 속성을 선행요인과 결과와의 관계에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1).

〈선행요인〉 〈스트레스대처 행위레파토리〉 〈활용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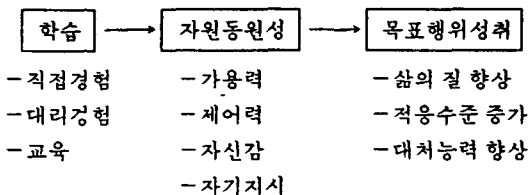


그림 1. 자원동원성 개념의 속성, 선행요인, 결과

5. 경험적 증거

경험적 증거는 개념의 속성이 실제 현상에서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원동원성의 경험적 증거로는 Rosenbaum(1983)이 개발한 Self-Control Schedule을 제시할 수 있다. SCS는 36항목으로 이루어진 자가 보고형 질문지로 1) 정서적 생리적 반응을 조절하기 위한 인지와 자기-진술문, 2) 문제 해결 전략 적용, 3) 즉각적인 만족감 지연, 4) 지각한 자기 효능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Self-Control Schedule은 인지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어 자원동원성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행위적인 레퍼토리와 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행위적인 요소와 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자원동원성 개념의 내가지 속성이 갖는 비중을 어떻게 배당할 것인가의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한 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자원동원성(Resourcefulness) 개념은 최근 우리나라 간호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사용하기 시작한 대상자의 행위 변화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resourcefulness 개념을 간호학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적절한 우리말 용어를 정하고 Walker와 Avant(1988)의 개념분석 단계에 따라 개념분석을 시행하였다.

resourcefulness란 스트레스 상황을 제거하거나 조절하기 위해 내적 혹은 외적 자원을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사전적 정의와 문헌고찰을 통하여 이러한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우리말 용어를 '자원동원성'으로 정하였다.

자원동원성은 학습에 의해 형성되는 개인의 내적 자원이다. 그러나 자원동원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화 과정에서 인지적 대처전략만을 강조하여 개념이 축소되었고 대부분의 간호연구에서도 제한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다른 연구(Matheny 등, 1993)에서는 사회적 자원의 활용 가능성, 시간관리 능력등을 자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어 이 개념의 범위를 재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자원동원성 속성은 가용력(availability), 제어력(controllability), 자신감(confidence), 자기 지시(self-instruction)의 4가지로 나타났다. 가용력은 자

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 인지-행위 자원 뿐 아니라 외적 사회적 자원까지도 문제해결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성있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속성으로서 자원동원성의 개념을 가장 잘 특징지워주는 핵심적인 속성이다.

두번째 속성인 제어력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즉각적인 욕구를 지연시키거나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뿐 아니라 불쾌한 생각, 느낌, 고통스런 생각이나 감정을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세번째 속성인 자신감은 자원동원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에 대처한다는 의미로서 내적 사건의 조절 능력에 대한 일반적 신념이나 자기효능(self-efficacy)을 내포한다.

네번째 속성인 자기 지시는 심리적 혹은 정서적 반응을 인지적으로 다루는 능력으로서 긍정적으로 스스로를 교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특성을 뜻한다. 즉 자원동원성이 높은 사람은 곤경에 처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암시를 주고 신념을 강화하므로서 문제를 해결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4가지 속성을 포함하는 자원동원성의 측정도구 개발이 필요하며, 개념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자기 효능, 자기 통제, 자기 조절 등의 유사 개념들과 동시 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구미옥 및 이은옥(1992). 건강신념 모델과 한국인 만성 질환자의 환자 역할 행위. 대한간호, 29(3), 49-63.

구미옥, 양영희, 이은남, 박송자, 박영입, 서순림, 김성재, 김인자, 최은옥, 이동숙, 이인숙, 이은옥(1997). 자기효능의 개념 분석. 간호학논문집, 11(1), 1997

김남성(1991). 인지적 행동수정 이론. 교육과학사.

김정희(1991). 스트레스와 평가 그리고 대처. 대광문화사.

동아출판사(1993). 동아 프라임 영한사전. 3판, 동아출판사.

서순림(1996). 항암치료환자에게 시행한 자기간호교육과 자원동원성 수준이 적극적 대처 행위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한글학회(1992).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Abramson, L. Y., Seligman, M. E. & Teasdale, J. D. (1978).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

critique and reform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1), 49-74.

Aikens, J. E., Wallander, J. L., Bell, D. S., & Cole. (1992). Daily stress variability, learned resourcefulness, regimen adherence, and metabolic control in type I diabetes mellitus : evaluation of a path mode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1), 113-118.

Braden, C. J.(1990). A test of the self-help model : Learned response to chronic illness experience. Nursing Research, 39(1), 42-47.

Braden, C. J.(1991). Patterns of change over time in learned response to chronic illness among participants in a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self help course. Arthritis Care and Research, 4(4), 158-167.

Braden, C. J., McGlone, K., Pennington, F.(1993). Specific psychosocial and behavioral outcomes from the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self-help course. Health Education Quarterly, spring.

Bressler, S. A. & Pierper, W. A.(1992). Competition trait anxiety and coping resources for stress in high school athletes.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Coaching and Athletics, spring, 17-21.

Brock, D. D.(1991). The effects of nutrition on coping with stress. Doctoral dissertation, Georgia State University.

Ellett, B. G.(1991). Stress and coping : actualizing a general model as applied to senior adults & alzheimer's disease. Doctoral dissertation, Georgia State University, Atlanta.

Fuller, S. R.(1987). Learned resourcefulness and other predictors of planning and beliefs in self-efficacy of cardiac patients and their spouse. Master's Thesis, Tel Aviv University, Tel Aviv.

Gintner, G. G., West, J. D., & Zarski, J. J.(1989). Learned resourcefulness and situation-specific coping with stress. The Journal of Psychology, 123, 295-304.

Granade, J.(1990). Patterning of coping resources

- among alcoholics. Doctoral study, Georgia State University, Atlanta.
- Gulesserian, B. (1984). The relationship between coping resources of depressed psychiatric in patients and their degree of depression. Master's dissertation, Georgia State University, Atlanta.
- Hinds, C. (1990). Personal and contextual factors predicting patients' reported quality of life : Exploring congruency with Betty Neuman's assumption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5, 456-462.
- Kadner, K. D. (1989). Resilience : responding to adversity.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27(7), 20-25.
- Kanfer, F. H. (1977). The many factors of self-control, or behavior modification changes its focus. In R. B., Stuart (Ed.) Behavioral Self Management : Strategies, Technique and Outcome (pp. 1-48). New York : Brunner /Mazzel.
- Katz, R. C. & Singh, N. (1986). A comparison of current smokers and self-cured quitters on rosenbaum's self control schedule. Addictive Behaviors, 11, 63-65.
- Leidy, N. K. (1990). A structural model of stress, psychosocial resources, and symptomatic experiences in chronic physical illness. Nursing Research, 39(4), 230-236.
- Leon, G. R. & Rosenthal, B. S. (1984). Prognostic indicators of success of relapse in weight redu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 15-24.
- Marheny, K. B., Aycock, D. W., Curlette, W. L. & Junker, G. N. (1993). The coping resources inventory for stress : a measure of perceived resourcefulnes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9(6), 815-830.
- McNamara, A. M. (1992). Cognitive response to symptoms in women with rheumatoid arthritis.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Arizona, Arizona.
- Meichenbaum, B. (1977). Cognitive-Behavioral Modification : An Integrative Approach. New York : Plenum Press.
- Rachman S. (1990). Learned resourcefulness in the performance of hazardous tasks. In M. Rosenbaum (Ed.), Learned resourcefulness : on coping skills, self-control, and adaptive behavior (pp. 165-181). New York : Springer Publishing.
- Redden, E., Tucker, R. K. & Young, L. (1983).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rosenbaum schedule for assessing self control. The Psychological Record, 33, 77-86.
- Reddy, J. V. (1993). Health and human resource mobilization : an assessment of staffing pattern in NLEP at operational level. Indian J. Lepr. 65 (1), 81-93.
- Rosenbaum, M. & Ben-Ari K. (1985). Learned helplessness and learned resourcefulness : effects of noncontingent success and failure on individuals differing in self-control skil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1), 198-215.
- Rosenbaum, M., & Ben-Ari S., K. (1986). Cognitive and personality factors in delay of gratification of hemodialysis pati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2), 357-364.
- Rosenbaum, M. (1980a). A schedule for assessing self-controlling behaviors : Preliminary findings. Behavior Therapy, 11, 109-121.
- Rosenbaum, M. (1980b).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control behaviors and tolerance of painful stim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9(4), 581-590.
- Rosenbaum, M. (1983). Learned resourcefulness as a behavioral repertoire for the self-regulation of internal events : Issues & speculation. In M. Rosenbaum, C. Franks, & Y. Jaffe (Eds.). Perspectives on Behavior Therapy in Eighties (pp. 54-73). New York : Springer Publishing.
- Rosenbaum, M. (1988). Learned resourcefulness, stress, and self-regulation. In S. Fisher & J. Reason (Eds.). Handbook of life stress, cognition, and health (pp. 483-496). Chichester, U. S. : John Wiley & Sons.

- Rosenbaum, M. (1989). Self-control under stress : The role of learned resourcefulness. Advances in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11(4), 249-258.
- Rosenbaum, M., & Jaffe, Y. (1983). Learned helplessness : the rol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learned resourcefulnes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2, 215-225.
- Rosenbaum, M., & Rolnick, A. (1983). Self-control behaviors and coping with epilepsy.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52(2), 244-253.
- Rosenbaum, M. & Palmon, N. (1984). Helplessness and resourcefulness in coping with epileps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2(2), 244-253.
- Rosenbaum, M. (1990). Learned resourcefulness, on coping skills, self-control and adaptive behavior. New York : Springer publishing Company, Inc.
- Smith, T. V. G. (1979). Cognitive correlatives if response to a behavioral weight control program. Doctoral Dissertation, Queen's University, Kingston, Canada.
- Walker, L. O. & Avant, K. C. (1988). Strategies for Theory Construction in Nursing(2nd ed.). Appleton & Lange, California.
- Weatherman, K. E. (1991). Stress-related Predictors of Long Term Smoking Status in Subjects Completing a Smoking Cessation Program. Doctoral dissertation, Georgia State University, Atlanta.
-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1992).
- Zauszniewski, J. A. (1984). Potential sequelae of family history of depression.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32(9), 15-21.
- Zauszniewski, J. A. (1994a). Health seeking resources and adaptive functioning in depressed and nondepressed adults.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8(3), 159-168.
- Zauszniewski, J. A. (1994b). Racial differences in self-assessed health problems, depressive cognitions, and learned resourcefulness. Journal of National Black Nurses' Association, 7(1), 3-14.
- Zauszniewski, J. A. (1995a).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resourcefulness for healthy older adults. Journal of Multicultural Nursing and Health, 1(4) : 28-32.
- Zauszniewski, J. A. (1995b). Learned resourcefulness : a conceptual analysis.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16, 13-31.
- Zauszniewski, J. A. (1995c).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siderations of resourcefulness. Image -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7(3), 177-180.
- Zimmerman, M. A., Reischl-T. M. Seidman, E., Rappaport J., Toro P. A., Salem, D. A. (1991). Expansion strategies of a mutual help organization. Am. J. Community Psychology, 19(2), 251-278.

– Abstract –

Key concept : Resourcefulness, Concept Analysis

Resourcefulness : A Concept Analysis

*Suh, Soon Rim¹ · Park, Young Im² · Kim, Sungjae³
Kim, In Ja⁴ · Gu, Mee Ock⁵ · Yang, Young Hee⁶
Lee, Eun Nam⁷ · Park, Song Ja⁸ · Choi, Eun Ok⁹
Lee, Dong Suk¹⁰ · Lee, In sook¹¹ · Lee, Eun Ok¹²*

Resourcefulness was analyzed by Walker and Avant's method to make a theoretical framework for nursing. Also, the appropriate Korean terminology was identified. "Resourcefulness" means the ability to use internal and external resources to eliminate or to control stress. '자원동원성' is chosen to be the most appropriate term to reflect the concept of resourcefulness.

Upon the concept analysis, availability, controllability, confidence, and self-instruction were identified as the defining characteristics of re-

sourcefulness. Contrary to other work, "availability" means the ability to use the social resources as well as the internal cognitive-behavioral resources. "Controllability" means the ability to delay or control immediate gratification of one's needs or to divert one's own mood in order to solve problem. "Confidence" is the self-efficacy belief in one's control ability. "Self-instruction" is the cognitive ability to instruct oneself positively.

Resourcefulness is learned by active experience, vicarious experience, and formal or informal instruction, and it is cued in the presence of a stressful situation or a need for change. As a result of the use of resourcefulness, the target behavior performed immediately and ultimately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r adapt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instrument including the defining attributes identified in this study. Also, it is necessary to simultaneously analyze the related concepts of self-efficacy, self-control, and self-regulation for appropriate use.

-
-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2)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Taejun University
 - 3)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ongju National Junior College
 - 4) 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Taejun University
 - 5)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yeong Sang University
 - 6)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ankook University
 - 7) Assistant Professor, Dae Dong Junior College of Nursing
 - 8)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eoul Health Junior College
 - 9) 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
 - 10) Teaching Assistant, Red Cross Junior College of Nursing
 - 11)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 12)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